

서호인의 '소설처럼'



무섭지 아니한가 -강화길 '대불호텔의 유령'

공포영화를 잘 보지 못하는 편이다. 난데없는 살인 마가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슬래셔 무비'(slasher movie)는 내게 쥐약이나 다름없다. 고교 시절, 내 취향을 모른 채 상영관에서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를 보게 되었는데, 나는 그야말로 한여름 밤 독안에 든 쥐 꼴이었다.

슬래셔 무비에도 이러한 지정인대 '고어 영화'(gore movie: 남자한 피와 잔혹한 살육 장면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영화)는 도대체 당치도 않다. 나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껏 고어 무비는 한 편도 보지 않았다. 남들이 영화 '쏘우'(Saw) 이야기를 하며 공포가 선사하는 전율을 말할 때 나는 그저 전전긍긍만정을 피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오컬트'(occult) 장르의 어떨까. 무서운 영화 싫어하는 사람이 귀신 이야기를 좋아할 수 있겠는가. '곡성'에 나온다는 명대사 "그럼 뭣이 중헌디?"를 나는 성대모사로나 겨우 들었다.

공포소설은 어떨까? 한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포소설 시리즈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와 들추기엔 거리가 꽤 먼 기억일 듯하다. 소설의 문장은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음향을 만들지 못한다.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편집을 또한 불가능하다. 은갖 자극과 감각에 익숙해진 시대다. 활자만으로 공포를 연출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다.

강화길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대불호텔의 유령'의 제목과 표지만 보고서 조금은 심드렁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동양풍의 호텔을 표현한, 세련된 동시에 에스러

운 표지가 주는 감성은 영미권 고딕 소설의 그것으로 보였다. 제목은 '힐하우스의 유령'을 일부러 떠올리게끔 계산된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고딕 소설 혹은 공포 이야기를 표방하는 것으로 보인 것이다. 과연 이 소설은 보이는 것이 다일까?

단정적으로 말해 이 소설은 보이는 것을 넘어선다. 공포의 재료는 원한이다. 원한의 발단은 전쟁과 폭력 그리고 혐오다. 그것의 주체는 인간이다. 주인공이자 주된 화자인 '나'는 소설가이다. 그리고 어릴 적 악령에 쫓겼던 적이 있다. 소설을 쓰려고 할 때 혹은 누군가와 관계를 진전시키려 할 때 악의에 가득찬 악령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소설을 기필코 완성해 악령을 누르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대불호텔이 그 소설의 모티브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한다. 나는 대불호텔의 사망 사건을 취재하기로 마음먹고 친구 '진'의 외할머니 '박지윤'에게 그 사건을 청해 듣는다. 박지윤의 이야기는 쉽게 믿을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해 나아간다. 대불호텔에는 유령이 혹은 유령과도 같은 원한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대불호텔에는 인간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가 사는 것처럼 기이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건 대불호텔을 갖가지 방식으로 거쳐 간 술한 사람들이다. 거기에는 공습으로 부모를 잃은 소녀가 있다. 공습이 아닌 좌우 갈등으로 부모가 살해당한 소녀 또한 있다. 혐오와 냉대에 익숙해진 화교(華僑)도 있다. 그렇게 전쟁 중에 겨우 부

지한 삶을 붙들고 견디는 인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작가는 외의의 인물을 집지 능청스러운 태도로 입장시킨다. '힐하우스의 유령'을 재치 있게 배치하며 셉티 픽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대목에서 긴장은 이완되고 시선은 넓어진다. '니콜라 유지원'이라는 소설을 쓰는 작가를 화자로 활용하는 서사 기법도 유머러스하되 또한 진지하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여름 특선 공포영화나 넷플릭스 장르물이 아닌, 활자가 알알이 내는 소설이라는 사실을 가장 멋진 방식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보다 무섭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니다. 인친 차이나타운의 오래된 건물인 대불호텔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지난하고 강박한 우리 현대사를 미루어 짐작컨대, 사실보다 깊은 진실을 담은 허구일 테다. 인친과 가까운 섬마을 사람들은 전쟁의 포화뿐 아니라, 전도된 사상으로 인한 폭력을 통과해야 했다. 어찌까지 이웃이었던 사람을 오늘 빨갱이라고 해서 죽였고, 또 다른 오늘에는 반동이라 하여 죽였다.

누군가는 동인천 항구가 평생을 살아온 고향이지만, 그저 외국인으로, 우리와는 무언가 다른 이방인으로 취급되어, 손가락질당하고 차별받았다. 이 사실보다 무서운 슬래셔와 고어와 오컬트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다. 원한으로 혹은 혐오로. 그리하여 '대불호텔의 유령'은 진짜 무서운 공포소설이 된다. 그리고 그 장르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강화길의 장르다.

<시인>

의료칼럼



한재영 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심장을 재활해 건강하게 장수하자

장·비용 문제 등으로 12주 동안의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개개인의 참여 의지를 높여 주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고 사회적 분위기 또한 조성되지 못한 탓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심장 재활이 무엇이며, 왜 필요하고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하며 심장 재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심장 재활이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앞으로 심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예비 환자들을 최적의 운동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로,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의학적인 평가, 운동 처방, 위험인자 관리, 교육과 상담, 행동 수정(식사요법, 금연, 생활 습관 변경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을 포함한 개인 맞춤형 포괄적 재활치료 프로그램이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가능한 한 조기에 신체적·정신적 및 심리적 으로 더욱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기 위한 재활의학적 행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른 의학적 접근보다 심장 재활은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심장 질환의 지속성 및 악화 가능성으로 장기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심장 재활의 적용 대상은 심근경색증을 앓은 환자, 안정화된 만성 심부전증, 그 외에도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 수술, 심장 이식 수술, 관상동맥 성형술, 심박동기 및 심실 보조 장치 삽입술, 판막 수술 등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 말초동맥 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 운동이 부족한 중년 또는 노년의 환자들이며 심폐 기능의 저하가 있는 모든 환자에서 필요하다.

심장 재활의 목표는 심장질환 환자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회복 시간을 단축하고, 지속적인 운동 및 위험인자 관리를 통한 심혈관 질환의 병태 생리 과정을 억제 또는 역전시켜, 심혈관질환 및 기타 원인에 따른 이환율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환자 맞춤형 운동 처방을 포함하는 심장 재활이 심폐 기능을 최적화해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을 줄이고, 같은 일을 해도 사용되는 산소 소모량이 적어지며, 빠른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 이상지혈증, 비만, 고혈압, 당뇨병이 개선되고, 또한 심리적 불안감 및 우울증을 줄여 줌으로써 얻어진다. 결과적으로 심장 재활은 심혈관질환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 치료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심장 재활이 활성화되는 길은 적극적인 참여 의지만큼 중요한 요인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환자 개개인뿐 아니라 정부, 의료진도 함께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심장 재활 활성화 방안으로 가정 심장 재활(병원에서 운동 처방을 받고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진 후 집에서 이루어지는 심장 재활)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스마트 재활의 활용을 연구하는 등 활성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야 할 것이다.

기고

전두환 씨의 명예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법부는 전두환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헬기가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두환은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 출석 과정에 "이거 왜 이래"라고 역정을 내서 공분을 자초했던 전두환 씨가 2심 재판에는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해 격정을 자아냈다. 재판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건강 문제로 사법적 단죄가 마무리되지 못할까 봐 전 씨의 건강을 염려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5·18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고 증언했다. 전두환 회고록 집필에 깊숙하게 관여한 민정기의 증언에 따르면 학살자로 매도되어 군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또 다른 왜곡이자 군의 명예와 책임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적반하장의 발언이다.

5·18과 관련해서 광주시민 그 누구도 군대를 학살자로 매도한 사실이 없다. 1980년 당시 신군부가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한 사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신군부 관계자에게 묻고 있을 뿐이다. 5·18 때문에 군대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보호는 군대의 존재 이유이자 군에 부여된 소중한 책무이다. 군의 명예는 국민을 보호했을 때 지켜진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도 군의 명예는 지켜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신군부는 권력 찬탈을 위해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헬기 사격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러한 살상 행위는 군의 명예와 책임을 스스로 버린 반헌법적 작태였다. 반면에 광주시민들은 신군부의 폭압 앞에 굴종이 아닌 저항과 영예로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 폭력에 관한 증거이자 불명예의 증거가 되었다. 이후 5월 광주는 저항의 상징으로서, 모두의 통치인 대중세상의 구현으로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역사적 변곡점에서 5월 광주가 호명되는 이유이다.

신군부 스스로 실추시킨 군대의 명예는 군이 자행한 역사적 과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참회가 있을 때 회복될 수 있다. 더 이상 실추될 것도 없겠지만 전두환 씨가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면 사실에 대한 고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군의 명예는 잘못이 없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때 지켜질 수 있다. 전두환 항소심 재판은 군이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역설적으로 환기시켜 주고 있다.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관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이유이다. 양식 있는 광주시민은 사법적 단죄에 대한 격정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전두환 씨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社說

허울뿐인 빈껍데기 문화전당 이대론 안 된다

지난 2015년 '아시아의 문화발신지'를 내걸고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개관 6년째를 맞이했지만 대표 브랜드나 킬러 콘텐츠 하나 없는 '허울 좋은 문화발신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유 기능인 콘텐츠 창작과 유통·교육·연구 등의 경쟁력이 떨어져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행정안전부의 '책임 운영 기고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원을 흡수·통합해 하나의 조직으로 탄생하게 된다. 문화전당은 지난 5년간(2020년 11월 기준) 공연 247건, 전시 139건, 교육 177건, 축제 41건 등 모두 894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문화원 상설 전시 체험 공간인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계단식 논'이 '2021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공간 및 건축 부문 골드위너를 수상하는 등 일부 콘텐츠나 프로그램은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창조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긴 하다. 하지만 문화전당의 콘텐츠 가운데 상당수가 실험성이 강해 대중과 유리되다 보니 무늬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전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세계를 겨냥해 준비했던 대형 공연 '무사'(MUSA)가 좋은 예다. 막대한 인력과 예산(총 17억)이 투입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개관 이후 문화 마인드가 없는 공무원들이 전당장을 맡다 보니 콘텐츠 창·제작은 물론 장기적인 로드맵도 없는 실정이다.

국내외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킬러 콘텐츠 부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중심축인 전당의 위상 및 지역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조직의 일원화를 계기로 문화전당이 세계적인 복합문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콘텐츠 보강과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부영CC 개발' 공공 기여 위한 협의체 구성을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 만큼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오후 빛가람혁신도시에서 부영CC 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부영 건설이 한전공대에 부지를 기부하고 얻는 과도한 이익금의 사회 환원을 위해 고민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지는 간 곳 없다"고 질타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부영CC 토지 용도변경 및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이익이 최소 50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지역민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5단계 상승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데다 건설사를 위한 과잉 특혜다"라고 지적했다. 나주시의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나주시가 행정기관인지 기획부동산인지 헷갈린다. 왜 건설사 측의 이익만 대변하느냐"면서 "제대로 된 전략경영평가 보고서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대안을 만들어 주민 설명회를 다시 열어 달라"고 했다.

주민들은 골프장 자연녹지를 풀어 5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면 혁신도시 전체의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영 측이 이익의 일부를 신설 학교 부지 제공이나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주시는 조속히 전문가와 시민회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공공 기여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주말 계림동 한책방 거리를 걷는 데 어디선가 김광석의 노래가 들려오더니 곧바로 조용필의 노래가 이어졌다. 나도 모르게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길을 걸었다. 노래가 흘러나오는 곳은 레코드 가게 '명음사'였다. 가게 밖에 놓인 스피커는 가요·클래식·경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내 보내고 있었다.

드 가게에 '들고 싶은 곡 리스트'를 주고 '나만의 베스트 음악 테이프'를 만들곤 했던 일도 그 시절 소중한 추억 중 하나다.

LP판매점인 명음사는 1980년 문을 연 뒤 남동성당 옆에서 오랫동안 영업하다 2019년 계림동으로 이사했다. 과거 이곳을 취재한 적이 있어 잘 알고 있던 터라 반가운 마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수천 장의 LP판과 CD, 마리아 칼라스와 카라얀 등의 브로마이드는 여전히 넓은 공간을 지키고 있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인상적인 건 빼곡히 꽂혀 있는 수천 개의 카세트테이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음원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에 아직도 당당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카세트테이프는 네덜란드 필립스 엔지니어 루오텐스가 1960년 그의 연구 팀과 함께 개발했다. 1963년 베를린 라디오 전자 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인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 1천억 개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카세트테이프는 1979년 소니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을 출시하면서 더욱 인기를 모았다. 당시 청소계 안으로 들어왔다. 수천 장의 LP판과 CD, 마리아 칼라스와 카라얀 등의 브로마이드는 여전히 넓은 공간을 지키고 있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인상적인 건 빼곡히 꽂혀 있는 수천 개의 카세트테이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음원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에 아직도 당당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학창 시절 용돈을 쪼개 카세트테이프를 하나 둘 사 모으던 기억도 함께 떠올랐다.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 DJ 멘트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며 공테이프에 녹음하던 일, 레코

년들에게 소니 '워크맨'과 1981년 출시된 삼성전자 '마리아'를 갖는 게 로망이었다. 최근 '레트로' 열풍을 타고 카세트테이프가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레이디가가나 방탄소년단 등 가수들이 카세트테이프를 발매했고, 얼마 전 KT는 카세트플레이어를 출시하기도 했다. 레코드가 가게에 들렀던 그날, 우리 일행은 어머니를 위해 남진과 이미자 히트곡 테이프를 구입했다. 흑시 카세트플레이어와 테이프가 집안 어딘가에 있다면 이 가을, '추억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address, and subscription rates.